

우리는 예수사람 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Shem

3:14-22

10 21		
10 28		
11 04		
11 11		

Shem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별점용

Mindle 2006

2 / 4 / 10 / 5 / () 8 30

F.C
G.S

1. 2007 ^ ^

2. ?? ^ ^

3. 2008

4. ~ !!

5. 5

6. 11 15 3

*^ *~!!!!^ ^

7. 4

: , , , , , ,

문서 선교팀 커뮤니티
www.coram.kr
 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닷케이알~



이제 한달간의 비전축제가 모두 끝났다. 이번 전도는 마지막이니만큼 참 어렵고 힘들었다. 우리는 서울역에서 주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 하지만 노숙자는 기독교 뿐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 싫은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오로지 우리가 전도 선물로 준비한 양말에만 관심을 가졌다. 내게 신경질을 내면서 까지 받아가려고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들고 있던 마실 것까지 요구하면서 뺏어갔다. 많은 시험이 들었다. 과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인지… 차라리 노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좀 더 편하게 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역은 전도하기에 정말 힘든 장소다. 서울역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만큼 변화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힘들게 하루를 보내는 노숙자들이 있다. 한 노숙자와 대화를 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많이 놀랬지? 이것이 서울역이야.”



내 주장만.. 나만 생각하는 나를 보다가...

제가 생명을 공급받는 곳..

저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목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사람 아자!



가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서울역을 보면, ‘참 멋 있다!’라는 생각만 했었고, 그 안의 어두운 면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정도 노숙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예전에 자신들이 잘나갔다는 것! 그들은 현재와 미래는 생각하려 하지 않고, 오직 과거 속에서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듦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서울역부터 주님의 땅으로 세우고 싶다.

이번 비전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다. 비전축제의 방향이 전도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많은 시험과 좌절에 직면 했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한명이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전도는 꼭 필요한 활동이다.